

# CULTURE WEBZINE

여행  
갈래  
06  
JUNE  
2023



당신에게 필요한  
여행이라는 휴식

# CULTURE WEBZINE

LIVING IN JEJU  
FOR A MONTH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즐기며  
한 달간 지내보자!

성지순례 특집

좋아하는 작품의 배경으로  
가보고 싶다면?  
성지순례 여행을 즐겨보자!



# CONTENTS

04

COVID-19로 인해 달라진 선호하는 숙박시설  
이민섭 기자

07

힐링하기 좋은 장소, 순천  
곽보문 기자

10

Living In Jeju for a month  
김성주 기자

12

제주도 여행은 고성능 CAR와 함께  
정철현 기자

14

부산 달리기 - 부산 먹거리  
강대선 기자

17

마음을 치유하는 힘, 茶(차)를 알다  
고미정 기자

19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  
이영숙 기자

21

일본여행 떠날 때? 애니메이션 성지순례 여행!  
이동규 기자

25

어렸을 적 감성이 가져다 주는 힐링 여행  
박민창 기자

27

TAKE YOUR TRIP!  
김성호 기자





이민섭 기자

## COVID-19로 인해 달라진 선호하는 숙박시설

코로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공간이 보장되는 숙박시설을 선호합니다. 개인공간이 보장되는 숙소로는 에어비앤비나 렌탈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숙소들은 다른 손님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숙박시설이 많이 선택됩니다. 방역 수칙에는 청소 강화, 손소독제 제공, 자가격리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는 숙소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을 하게 되면 선호하는 숙박시설로 호텔이(35.7%)로 1위를 하였고 펜션이(16.5%),콘도미니엄·리조트(13.8%),자연휴양림 시설(11.6%)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자료 : 경기연구원(2020),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

참고기사:<https://www.kyeonggi.com/article/202005281127394>



출처 : <https://blog.naver.com/geolaputa/223067458130>

## 국내 여행 활성화

코로나 시절에는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국내여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행은 해외여행에 비해 저렴하고, 이동 거리가 짧아 감염 위험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국내여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여행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산업은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여행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여행을 제한하는 지역이나 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활성화가 된 지역으로는 제주도, 강릉, 경주 등이 있으며 반면 여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된 지역, 특별방역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확진자 유행이나 감염병 발생 지역등이 있다고 합니다.

## 떠나는 여행에서 머무는 여행으로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떠나는 여행에서 머무는 여행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여행일정을 만들 때 주로 관광지나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현재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느끼며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머무는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머무는 여행이 갖는 특징은 숙박과 휴식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병원과의 거리 등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합니다. 또한, 머무는 여행은 지역의 문화와 삶, 자연을 경험하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머무는 여행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숙박시설이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액티비티,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등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액티비티나 관광지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하며, 가까운 거리의 여행지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관광산업체와 숙박업체에서는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chy4058/223038601370>

## 럭셔리 여행의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취소나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경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럭셔리 여행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럭셔리 여행에서는 개인적인 공간과 개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더욱 신경쓰게 되면서, 개인적인 공간과 개별적인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럭셔리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는 개인 풀, 스파, 골프장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럭셔리 여행에서는 일반적인 대중 교통보다는 개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럭셔리 여행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럭셔리 여행이,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코로나19 시대에 럭셔리 여행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부유한 계층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자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액티비티 여행의 증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국내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중에서도 액티비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액티비티 여행은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힐링하기 좋은장소 순천



곽보문 기자

**만**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목적이 힐링을 위해 가기도 하고 친목을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한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려는 이유는 수년간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되어온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동기로 '휴식'을 꼽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휴식 시간 마련(84%), 정신적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 확보(78%), 기분 전환(78%)이 전 세계 여행객들의 여행 동기 1~3위 차지했다. 그럼 여행을 가기 위한 필수 요소 중 가장 중요한것은 '어디를 갈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국내로갈것인가?', '해외로갈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것이다.

그 여행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곳을 알고 싶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이면 그곳의 숙박을 알아보거나 교통편을 알아보는 간단한 계획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비용에 스트레스를 가지지는 마라. 그렇게 된다면 요즘 오르는 물가와 숙박비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여행을 꺼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행을 하다보면 그것이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생각은 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이다', '나 자신의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게 좋다. 만약 혼자 여행을 간다면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순천을 추천한다. 순천에서 가볼만한 곳은 3곳 정도 추천한다.



## 낙안읍성

이 장소는 우리나라에 3대 읍성 중 하나인 낙안읍성이다. 한적하고 혼자서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으며 풍경이 매우 좋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무료로 체험할 거리도 많다. 입장시간대가 다르다. 09:00~18:00(2월~4월, 10월), 09:00~17:30(1월, 11월~12월), 08:30~18:30(5월~9월) 그리고 주차비는 무료이다.



## 드라마 세트장

이곳은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의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만약 자신이 70년대부터 90년대 분이거나 과거의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추천한다. 여기서는 옛날 교복을 빌려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달동네 세트장쪽이 특히 풍경이 좋다. 입장시간대는 09~17:00까지 입장가능하다. 그리고 마감시간이 18:00까지이다. 주차비용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다.



## 순천만 습지

이곳에서는 푸른 갈대밭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이곳 갈대밭을 지나가면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곳을 계속 걸어 산을 타고 끝까지 걸어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다. 입장시간대는 이곳도 다르다. 09:00~18:00(4월, 9월~10월)까지 입장가능 마감시간은 19:00, 09:00~19:00(5월~8월)까지 입장가능 마감시간은 20:00까지이다. 주차비용은 3,000원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마다 입장료가 있다. 하지만 이 장소들을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통합입장권이 있다. 통합입장권은 각각의 장소에 있는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성인 12,000원, 청소년 및 군인 8,500원, 어린이 5,500원 이렇게 제시 되어있다. 이 3곳 외에도 통합권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순천만 국가정원, 자연휴양림,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이 있다. 순천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지만 혼자 가기 좋고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곳을 골랐기 때문이다. 만약 이 3곳 외에도 순천을 더 구경 하고 싶다면 당일로는 부족할 것이다.

# Living In Jeju for a month

##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최근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는 여행자들이 많아졌다. 한 달 살기를 시작하면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여행을 할 땐 몰랐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지고 시간이지날수록 서서히 스며들어 제주도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김성주 기자

### 숙소 구하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숙소부터 구해야 한다. 제주도는 의외로 면적이 넓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효율성을 위해 숙소 위치를 잘 고려해서 숙소를 정할 필요가 있다.

신제주나 구제주가 있는 시내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서 차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한 달 살기 지역으로는 추천을 별로 할만하지는 않다. 서귀포나 신서귀포 지역은 편의 시설이 가깝고 교통량은 많지 않으면서도 동쪽이나 서쪽 어느 쪽이든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는 위치적 장점이 있다. 동쪽이나 서쪽으로 숙소를 정했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숙소는 에어비엔비, 네이버 카페, 미스터멘션 등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밴드의 '제주도한달살기&방구하기-멘포롱또똥'을 추천한다 1인 원룸형부터 가족 일반실, 가족 고급실 등 다양한 선택지도 있으며 큰 독채, 마당이 있어 아이들과도 함께 지내기 좋으며 애견 동반도 가능하여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렌트카 or 자차 선택하기

단기 여행자들에게는 렌터카가 더 효율적이지만 한 달 살기를 하는 사람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제주 렌터카 업체가 많아서 육지보다는 렌터카 비용이 저렴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한 달을 꽉 채워 단기 렌트를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 렌트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도 비용은 세 배 이상 추가되기 때문에 많이 비싸진다. 그러므로 자차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

한 달 정도면 무조건 배로 차량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게 정말 이득이다. 배가 1인인 탑승요금+차량 선적 비용 합치면 비행기값보다 비싸지만 렌트비에서 크게 세이브할 수 있으며, 완도나 해남에서 출발하면 1시간 40분~3시간 내외로 도착하는 배도 있고, 수도권 인천에서 출발하는 배는 오래 걸리지만 요즘은 배 안에 서비스가 잘 되어있으며 다양한 여가 시설 오락실과 노래방 영화관 편의점 애견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펫가든 등등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공간도 엄청 많다.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배도 있으니 다양한 배편에 대해 본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 제주도 생활 팁 렌터카

제주도는 제주 시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운전하기 수월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고, 교차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서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렌터카 파손 보장 금액이 가장 큰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제주 렌터카 가격 비교를 하는 곳은 제주 패스 렌터카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 차량을 한눈에 비교하면 편리하다. 중소 업체보다 금액이 비싸더라도 SK 렌터카나 롯데 렌터카 같은 대기업에서 렌트를 하면 보장 범위가 넓어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차량을 인수하였다면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차량을 인수하고 출발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차량을 한 바퀴 돌면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상한 곳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필수로 해야 한다

### 음식점 및 카페

제주도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휴무일도 제각각이고, 비정기적으로 쉬는 경우가 엄청 많다. 찾아가기 전에 휴무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고 재료 소진 시 조기 영업 종료를 하는 곳도 많으니 직접 전화해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산간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은 대부분이 오후 6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고 보면 되고 바닷가 쪽으로 내려와도 일부 술집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후 8~9시에는 영업을 종료 종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려면 오후 6시에는 움직이는 것이 좋다.

### 입장료

제주도는 수많은 테마파크가 있는데 대부분 사설 관광지라서 입장료가 비싼 편이다. 이럴 때에는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네이버 예매를 통하면 20% 이상 저렴하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방문하기 전에 네이버에서 검색하여서 구매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매한 입장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제주도 여행은 고성능 CAR와 함께



정철현 기자

맑고 화창한 날씨에 오픈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에메랄드 빛 바다를 구경하는 상상은 제주도에 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혼잡하고 햇병날 것 같은 도심 운전이 아닌 기분 좋은 드라이브는 제주도 여행에서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제주도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드라이브 코스 소개는 제주공항 기점으로 반시계 방향 (서쪽-남쪽-동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쪽보다는 서쪽이 지대가 높고 바닷가와 가까워서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짧으신 분들은 서쪽 먼저 돌아보시길 추천드리며 중간 산, 즉 내륙지방 도로 또한 해안도로와 다른 느낌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애월 해안도로

제주도에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한 곳 으로 손꼽힙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작고 아담한 해안절벽, 검은 현무암, 고즈넉한 마을이 어우러져 아주 아름답습니다.

구엄포구에서부터 주얼리 하우스 사이에 있는 해안바위들이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근처에 중엄리새물, 돌고래전망대, 신비한 용천수가 솟아나는 광지과물해변이 있고, 한담해변에서 광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한담해안산책로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4월에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항몽유적지 근처에서 멋진 청보리밭을 볼 수 있습니다.



## 2. 한경 해안도로

주로 신창 풍차 해안도로로 불리며, 신창리포구 ~ 용수항 ~ 자구내포구 ~ 영알해안 ~ 수월봉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신창리 쪽에는 주변에 새로 발견된 갯물이란 뜻의 용천수 싱계물공원과 노천목욕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창 풍차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풍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풍차들을 볼 수 있는데, 풍차 밑으로 생태 체험장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 3. 형제 해안도로

원래 이름은 사계 해안도로였으나 형제섬이 잘 보인다고 형제 해안도로로 개명한 도로로, 송악산-사계포구 ~ 용머리해안으로 이어지는 약4km 정도의 해안도로입니다.

마치 용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용머리해안과 형제섬, 그리고 아름다운 산방산이 매우 볼만하며,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워 시간을 맞춰 가면 좋으며 날이 맑을 때면 남쪽의 가파도와 마라도 까지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름은 가보고 싶은데 걷기가 힘들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산방산 지난 후에 보이는 군산오름을 추천드립니다. 차로 거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어 5분이면 오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 4. 구두미포구 ~ 쇠소깍 코스

형제해안도로를 지나 주상절리대 방향으로 오다 보면 차나 사람이 많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길 주위로 야자수가 심어져 있어 이국적인 경치를 보여줍니다.

구두미포구에서 쇠소깍으로 가는 약 4km 구간도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쇠소깍의 바다와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투명 카약을 타며 놀 수도 있습니다.





# 부산달리기 부산먹거리



강대선 기자

## 부산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로,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산물 요리가 많이 발달했어요. 또한, 한국 전쟁 당시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팔도의 음식문화가 부산의 전통 식문화와 혼합되었고, 이때 돼지국밥, 칼국수, 곰장어 구이 등의 음식이 생겨났어요. 이런 독특한 음식문화 때문에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 여행 음식의 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바다

## 돼지국밥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돼지 뼈로 우려낸 육수에 돼지고기 편육과 밥을 넣어 먹는 국밥입니다. 진한 국물과 푸짐한 고기에 속이 든든해지며, 기호에 따라 다진 양념이나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면 더욱 맛있습니다. 부산 서면시장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고 아직도 부산 현지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돼지국밥집이 몰려있는 서면 돼지국밥 거리가 있어요



남포동온정밀면

## 밀면

부산에서 여름철에 즐겨 먹는 찬 국수의 일종으로, 밀가루로 만든 국수에 양념된 고기와 오이, 계란 등을 올려 먹는 음식입니다. 국수는 차가운 물에 담궜다가 건져내어 식감이 쫄깃하고 시원하며, 양념은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서 잘 어울립니다. 밀면은 한국 전쟁 당시 냉면 재료인 감자나 메밀을 구하기 어려워 밀가루로 면을 만들었던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부산에는 곳곳에 밀면 집이 있지만, 남포동에 있는 온정밀면이 유명합니다.



서면돼지국밥거리



## 곰장어 구이

연탄불에 곰장어를 구워낸 후 껍질만 벗겨 먹는데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곰장어는 본래 가죽 제품에만 사용된 재료인데,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였어요. 부산 곰장어는 기장식과 자갈치식 두 가지 방식으로 먹습니다. 기장식은 곰장어를 산 채로 쥔불에 구워 소금구이로 먹는 방식이고, 자갈치식은 양파를 듬뿍 넣고 매콤한 양념을 버무려 볶아 먹는 방식입니다. 자갈치 시장, 온천장, 기장 등에는 장어 음식점이 밀집한 곰장어 골목이 있어요.



부평죽발골목

## 냉채 족발

얇게 썬 족발에 해파리 채와 오이, 당근을 올리고 겨자소스를 부어 먹는 부산 대표 음식입니다. 족발과 해파리 채의 쫄깃한 식감과 야채의 아삭함, 겨자소스의 알싸함이 입안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부산 부평 족발 골목에 족발 음식점이 모여 있습니다. 냉채 족발 원조 음식점을 찾는다면 이 골목을 찾아가 보세요.



기장장어골목

## 마음을 치유하는 힘 차(茶)를 알다

2023 하동 세계 차(茶) 엑스포 2023.5.4.(목)~6.3(토)



고미정 기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좋아하고 마시나요? 세계 3대 음료가 차, 코코아, 커피라고 하지요. 이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산지로 유명한 곳 중 하나인 하동에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하동 세계 차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제가 5월 21일에 하동 차 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차 엑스포라는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중 제가 소개할 곳은 세계 차 체험관입니다.

**한국의 차 체험관**에서는 조선시대 왕이 입었던 곤룡포와 왕비의 예복인 당의를 입어보는 체험도 있었고 우리의 전통 다례로 고요히 앉아 명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녹차와 발효차로 편안히 힐링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 체험관은 서울의 창덕궁 후원의 사대부가 살던 주택인 연경당을 모티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차 체험관**에는 제가 직접 체험한 공간으로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다실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루차인 말차의 행다 시연과 차를 마시고 한 수의 시를 읊조리는 모습은 마음의 떨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차 체험관



##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

이영숙 기자

**중국의 차 체험관**은 일상다반사의 나라로 사면이 건물에 둘러싸인 중국 전통가옥인 사합원의 중심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청차와 보이차를 우려 시음 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마음이 차분해 지는 공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를 우리고 마시는 모습을 차예라 말하고 체험객들이 차예하는 모습들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국의 차 체험관**은 로맨틱한 티하우스와 영국의 국화인 장미꽃 포토존을 만들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화려한 티팟과 찻잔으로 영국의 대표차인 밀크티와 에프터눈 티를 마시는 체험도 있었으며 다양한 홍차제품도 전시를 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차 체험관**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통주택의 형식인 돌벽집을 표현하고 각설탕과 레몬청, 로쿰과 함께 취향껏 차를 마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튀르키예에는 1인당 세계 최고의 차 소비를 하는 나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동 세계 차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매년 하동 야생차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느림의 문화로 마음의 힐링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우리는 왜 차를 마시는가?"

술을 마시면 취한다. 허나 “차도 사람을 취하게 한다” 그렇다면 취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문학적 표현이라 생각하기 쉽겠으나 “풍경에 취하다”, “인품에 취하다”, “음악에 취하다” 등 취한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그리 적지 않다. 인정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는 것은 ‘끌리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차에 취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니 여러 쓰임새를 가진 취하다는 말의 최대공약수는 ‘열림’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열림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즐거움이 일어난다.

사람의 피 상태는 그의 몸 상태를 드러내는 잣대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피가 건강하면 그 몸도 건강할 것이고 설령 외부적 요인 등으로 잠시 건강을 잃을 지라도 피가 건강하면 곧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차를 마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차는 사람 몸의 피 상태를 바꾼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바꾸며 좋은 차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니 역설적으로 사람 몸의 피상태를 빠르게 개선시키는 차일수록 좋은 차라고 할 수 있다. 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차의 작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작용의 기준이 무차별적이지 않고 사람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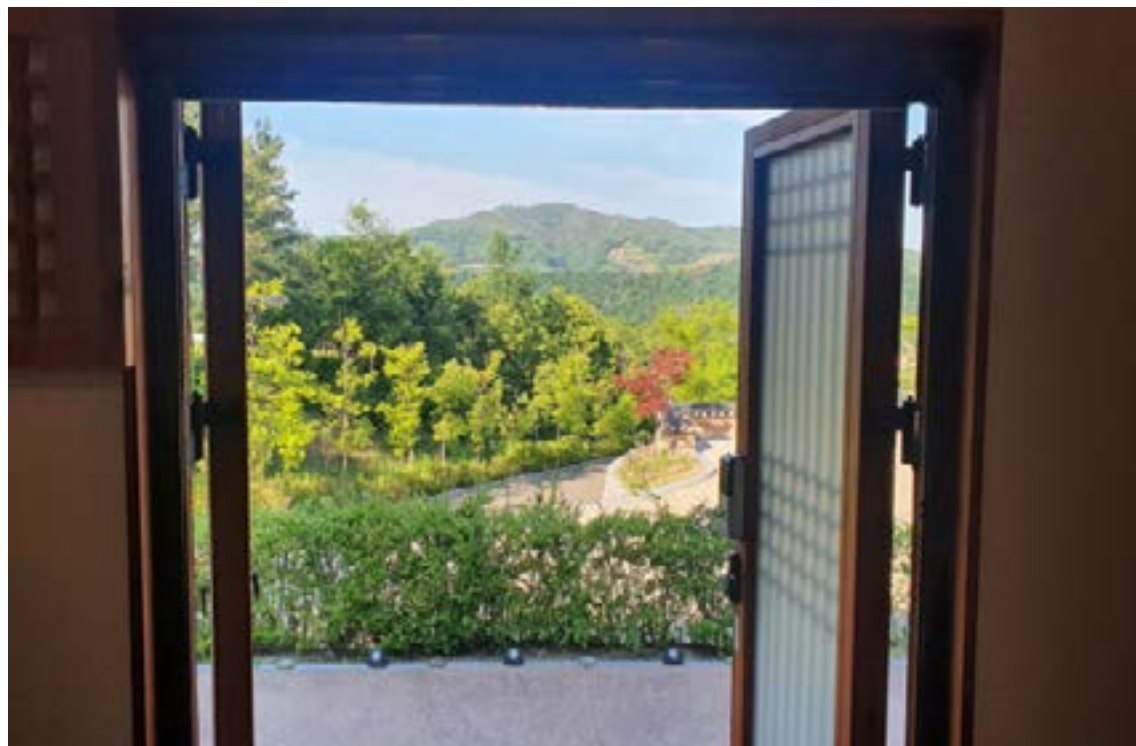
## "차는 급한 곳으로 먼저간다"

즉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이 일어나며,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로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작용이 일어나고.신장과 방광의 상태가 나쁜이에게는 그것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우선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요컨대 차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몸의 피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 힘을 통해 그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영역을 우선적으로 바로 잡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의 효능 가운데그 기운이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피는 기준인데, 여기서 차가 피상태를 바로잡는다는 곳은 바로 사람의 기운을 맑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의 쓰임새를 이리저리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 할지도 모를일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차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 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피의 상태를 가능한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차의 작용이 존재한다.



## 일본여행 떠날 때? 애니메이션 성지순례 여행!



### 이동규 기자

우리가 즐겨보는 미디어 콘텐츠에는 항상 인물, 스토리에 어울리는 배경이 등장한다. 그 중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의 배경을 활용한 경우도 잦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마니아들 중에서는 작품 속에 등장한 지역을 여행하는 일명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일이 종종있다. 일본에만 해도 수많은 관광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 애니메이션 마니아 사이에서 유명한 3가지 작품인 '봇치 더 록', '쓰르라미 울 적에', '바라카몬' 에 등장한 관광지 여행 가이드를 하고자 한다. 이번 성지순례 여행을 통해 일본의 여러가지 관광지와 문화를 둘러보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 '봇치 더 록' 속 에노시마 섬



봇치 더 록은 2022년 10월에 방영된 음악, 일상 장르의 애니메이션이다. 그 중 9화에서 등장한 에노시마 섬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 속한 섬이자, 가마쿠라시와 더불어 쇼난 지역의 주요 관광지이다. 먼저 카타세에노시마역에서 내려왔을때 바로 보이는 카타세히가시하마해수욕장은 해수욕, 서핑, 석양으로 유명한 장소이다. 해수욕장을 지나 섬과 연결된 에노시마 대교를 건너면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섬 안에는 타코센베이 등을 파는 여러 점포들과 에노시마 신사, 사무엘코킹 정원, 에노시마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전망등대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섬의 특이한 점은 술개가 종종 사람들을 습격하여 소지품이나 간식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는데, 작 중 주인공인 '고토 히토리' 또한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 술개들에게 빼앗겨 웃픈장면을 선사하기도 했으니 이곳을 여행할 때는 조심하길 바란다. 또한 에노시마 섬은 주요 관광 포인트들이 산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작품 속 주인공들도 걷다가 지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도보로 답사하면 생각보다 체력을 요구하니 옷이나 짐은 가볍게 하거나 이점을 커버하기 위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미지 출처:  
<https://trip.pref.kanagawa.jp/ko/destination/enoshima/65>  
<https://namu.wiki/jump/1MYouj%2FY0OvoJZQcMNAOPPeZCF3v46m4t0715phGDqO4m51sGd5rCpmfSnQYij9vEgMwEQYqAh0qhZQQuQAKmw%3D%3D>

## '쓰르라미 울 적에' 속 시라카와고 마을

쓰르라미 울 적에는 2006년 4월에 방영된 미스터리, 호러, 서스펜스 장르의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의 인물, 사건, 스토리의 중요한 배경이자 팬들의 성지순례로 유명한 시라카와고 마을은 일본 기후현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마을 면적의 96% 가까이가 숲으로 뒤덮여 있으며, 높은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마을은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유명한데, 강설량 평균은 무려 105cm에 적설량에선 2006년 297cm을 기록했다. 이런 기후 때문에 시라카와고 마을은 많은 눈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 보족하고 높은 독특한 지붕 형식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눈내리는 겨울에 더욱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바뀐다고 한다. 또한 시라카와고 마을은 약 1시간정도 천천히 걷다보면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시라카와고 전통가옥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물인 와다케, 마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시로야마 전망대, 개성넘치는 축제 도부로쿠 마츠리가 열리는 시라카와하치만구 신사가 유명하니 일본에 와서 한적한 시골의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 이곳에 오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이 애니메이션은 장르 특성상 선정성이 다소 높으니 시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한다.



이미지 출처:  
<https://namu.wiki/jump/57mJBefr%2BAhvryRvXM5LjnTxc%2F8eBJ7rdP6pVHXu7JeZVe9S1kz1coRSPmV91ytfnpbW8PEesdJEaPKtGllg%3D%3D>  
<https://www.themoviedb.org/tv/25760-higurashi-no-naku-koro-ni-kai/images/backdrops?language=ko-KR>



## '바라카몬' 속 후쿠에 섬



바라카몬은 2014년 7월에 방영된 서예, 일상, 코미디 장르의 힐링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의 메인배경이 되는 후쿠에 섬은 나가사키현 고토시의 일부인 섬으로 고토 열도의 가장 큰 섬이자 최남단의 섬이다. 이섬은 나가사키에서 꽤 떨어져 있어 배로 몇 시간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섬으로 따뜻한 날씨,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해산물, 울창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규슈의 인기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관광장소로는 프랑스 선교사가 지은 이모치우라 성당, 투명한 모래와 푸른 바다로 유명한 다카하마 해변, 파도의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오세자키 절벽과 절벽 꼭대기에 있는 이름 없는 등대가 있다. 후쿠에 섬은 특히 따뜻한 아열대기후와 바다로 둘러싸인 경관, 다양한 숙박 시설로 인해 아웃도어 애호가들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역인 코토이시 나루와 그 일행이 다니는 나나츠타케 분교는 원작 작가의 모교로 실존하는 학교라고 한다. 게다가 작품 속 등장하는 고양이나 우유 또한 실제 고양이 모델과 고토에서만 판매하는 고토브랜드 우유로 사용하는 등 작가의 섬과 작품에 대한 정성과 디테일이 잘 느껴진다. 한적한 섬과 아웃도어 그리고 원작 작가의 인생이 궁금하다면 한번쯤 특별한 모험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https://www.discover-nagasaki.com/ko/sightseeing/674>  
<https://watcha.com/ko-KR/contents/tPjIjoR>

## 어렸을 적 감성이 가져다 주는 힐링 여행



박민창 기자

### 짱구는 못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끝나지 않는 7일간의 여행은 2022년 5월 4일 출시한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입니다. 이 작품은 짱구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을 여행하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일간의 여행 동안 짱구와 그의 가족, 친구들은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여행을 가고 싶지만 코로나의 발병이 무서워 여행을 기피하던 때, 이 게임이 나와 유사 여행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은 게임입니다. 실제로 한 게임 언론 매체에 의하면 '이 게임은 평범한 게임이 아닌 힘든 시기를 재미있고 우아하게 해주는 힐링 게임'이라고 평가된 적이 있습니다.





## 게임의 효과와 '그' 장소의 여행

게임으로도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게임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여행을 즐기는 기분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닌 즐거운 축제, 전통,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이라지만 실제로 갈 수 없는 곳을 가볼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는 게임에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현에 있는 카스카베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주인공 짱구가 실제로 사는 마을이 배경이 된 곳으로 자신이 주인공인 짱구가 되어 마을을 탐색하거나 아사쿠사의 역사를 느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한 특정 기간에 이곳을 방문하면 축제가 열리기도 하여 마을의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을 통하여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게임의 배경인 곳으로 가서 그 감성을 느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TAKE YOUR TRIP!

도쿄로 떠나는  
게임 '페르소나5'  
성지순례 여행



김성호 기자

### 3년만에 돌아온 여행의 기회

내향적인 성격 탓에 평소 외출을 꺼리는 필자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여가생활을 즐겨왔다. 그런 내가 여행을 생각하게 계기는 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활동 무대를 보면서 '아, 나도 주인공이 걸어 다녔던 저 장소를 다녀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필자의 경우는 그 대상이 게임이었다. 좋아하는 게임 시리즈가 '실사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배경'이라고 받은 평가를 보고,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 숨 쉬고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곧 여행에 대한 꿈으로 커져갔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바이러스 '코로나19'도 3년이 지난 현재,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 해제를 발표할 정도로 영향력이 사그라들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전염병에 대한 걱정도 덜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나야 할 차례다.

우리의 여행 테마는 성지순례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는 특정 종교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종교인들이 찾아가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언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특정 작품의 팬이 그 작품과 관련된 장소나 건물을 찾아가는 것을 성지순례라 부르기도 한다.

### 어디로 여행가면 좋을까?

그렇다면 성지순례를 떠날 여행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여행지를 골라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게임 '페르소나5'의 배경이 되는 도쿄를 추천한다.

이유는 가깝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체 여행 기간 중, 여행을 즐기는 것보다 이동하는게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권이어서 문화적 차이를 적응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페르소나5'의 도쿄를 추천한다.

그러면 여행지도 결정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순례 여행지 가이드를 시작하겠다.



## 하루의 시작과 끝 산겐자야의 '뉴 마리나'

'페르소나5'는 2016년에 발매된 롤플래잉 게임으로, 페르소나라는 초능력을 얻은 주인공이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의 게임이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은 어떤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도쿄에 있는 학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주인공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님의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인 '르블랑'의 다락방에서 하숙하게 된다.

그리고 '르블랑'의 모티브가 된 가게가 있는데 바로 도쿄 산겐자야에 위치한 스낵바 '뉴 마리나'다.



'괴도'가 콘셉트인 '페르소나5'는 주인공들이 악인들의 악한 마음을 훔쳐 개과천선 시키는 괴도 활동을 한다

스낵바라는 곳은 한국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한 장소인데, 시간제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을 해야 한다는 점, 가게의 사장님이나 종업원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노래방 기계가 있다는 점 등등,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장소다. 그나마 비슷한 곳을 찾아보자면 호프집이나 바(Bar)가 있지 않을까 싶다.

향기로운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임의 카페 르블랑과는 달리 뉴 마리나는 일본 가정식과 간단한 주류를 제공하는데, 주점이라는 특성상 밤에 영업하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녁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게임 속 카페 '르블랑', 가장 오른쪽 천막이 입구다

카페 '르블랑'의 모티브가 된 스낵바 '뉴 마리나'

## 도시의 혈관 '시부야'

시부야는 일본을 대표하는 번화가 도시이다.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등교를 위해 시부야역에서 환승하기도 하고 방과 후에도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주인공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장소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주인공과 연관성이 있는 시부야역 근처의 랜드마크를 소개하겠다.

### 아오가에루 열차



기차의 디자인이 마치 청개구리를 닮았다 하여 붙은 별명인 아오가에루 열차

### 은퇴 열차의 '두 번째 삶'

시부야역을 나오면 아오가에루 열차가 반겨준다. 개구리를 닮은 디자인과 초록색이라는 컬러 덕에 '아오가에루(청개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 열차는, 1954년에서 1970년까지 운행되었고, 은퇴한 현재는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소개해주는 여행지 외에 궁금한 곳이 있다면 방문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 오늘도 주인을 기다리는 '하치'

아오가에루 열차에서 조금 걸어서 나오면 시부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충견 하치공 동상이 세워져 있는 광장에 도착한다.

충견 하치공 동상은 주인을 시부야역에서 매일 마중 나오던 하치가 주인이 죽은 후에도 시부야역에서 마중을 나오는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를 기리는 뜻에서 세운 동상이다.

혹시나 여행 중 하치공 동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동상에 얹힌 이야기를 떠올리며 여행 중 소소한 재미를 얻어가길 바란다.

### 충견 하치공 동상



아키타현 '하치', 진돋개 '백구' 못지않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도쿄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사람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스크램블 교차로'의 풍경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 분주한 도시의 풍경

시부야역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라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빼놓을 수 없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시부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로, 도쿄라는 도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각종 미디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차점이다.

단순히 횡단보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잘 것 없는 볼거리겠지만, 분주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것이다. 스타벅스 츠타야점에서는 이 '스크램블 교차로'를 구경하기 알맞은 위치에 있으므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분주히 움직이는 도시 경관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로써 성지순례를 테마로 한 게임 속 실제 배경 장소 여행 가이드가 끝났다. 이 글은 초보 여행자인 독자분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필자 역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초보 여행자인지라, 필자 자신을 위한 글이기도 했다. 그래서 손님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장소를 소개해주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을 보고 여행을 떠날 마음이 생겼다면, 글을 작성한 필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고, 혹시나 그렇지 않은 독자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다면 찾아서 등장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를 떠나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꼭 좋은 여행을 즐기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